



# 모두 쏠라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냥 뇌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도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苦)가 있나?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 닥치나, 이런 액이 닥치나 이러시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만나서 임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건 왜 합쳐지느냐, 악의 인연도 만나고 선의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들 따라서 모습 모습을 바꿔가면서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한데 합쳐졌는데 그대로 뇌졸 수가 있나? 그레가지고선 서로 내가 제일 대장이 된다, 대표인이 된다 하고선 싸우다 싸우다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인과로서 만난 인연들이 악의 인연, 유전의 인연, 또는 업보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한데 합치면서 그 모습은 다 없어집니다. '흠! 너 가는데 내가 못가?' 하고 붙어 돌아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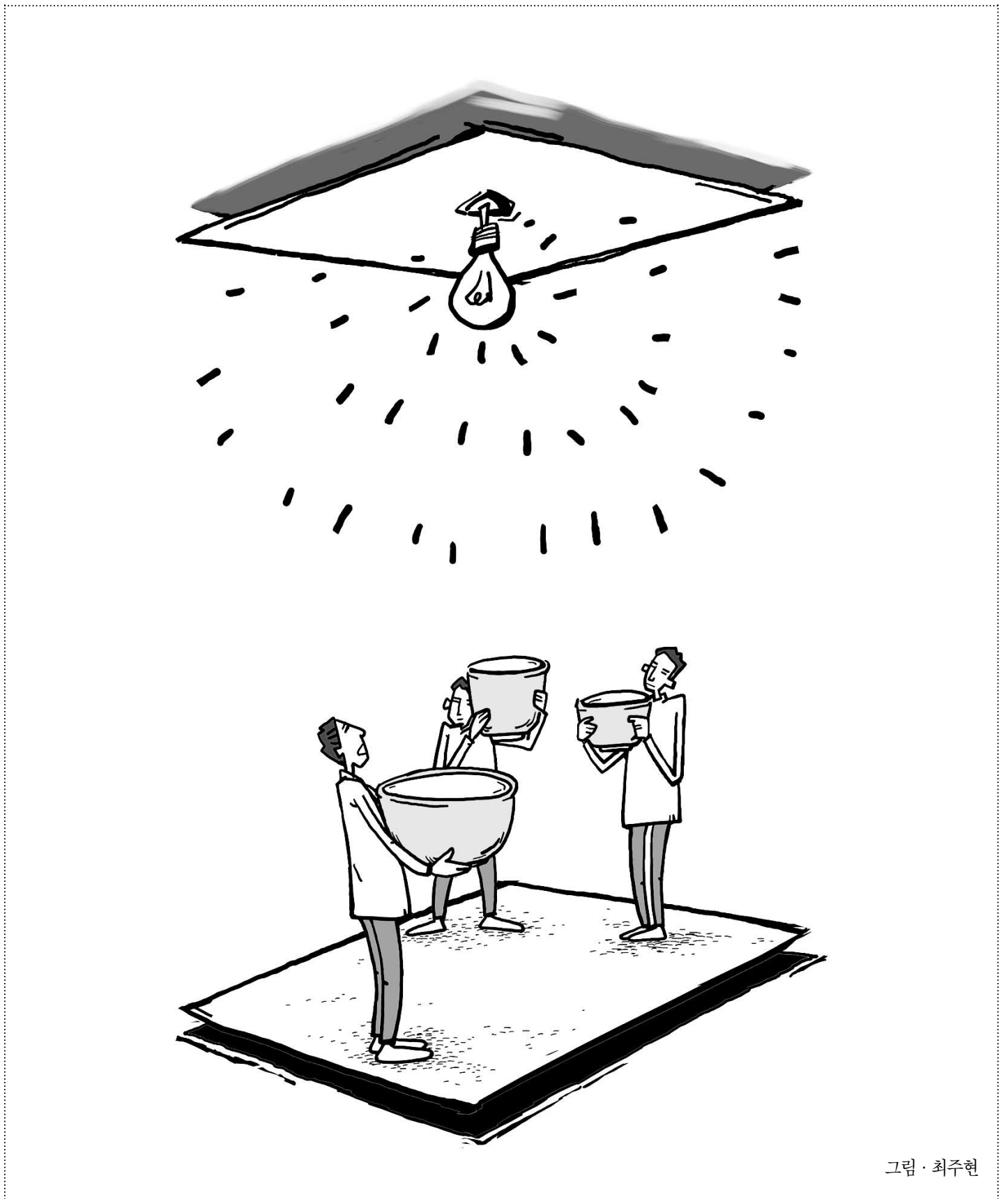
붙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생겨서 자라는 대로 그것도 커가고 있죠. 점점 모습이 갖춰지죠. 세포의 모든 생명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의 인연을 만난 게 차레가 돌아오면 참 흥미롭고 좋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악의 인연을 만나고 유전의 인연을 만나고 업보의 인연을 만나고 병고의 인연을 만났으면 고만 병이 들고 말죠. 그러한 요소요소가 돌아가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는가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울어야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고선 점을 딱 찍고 넘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야, 그대로야, 그대로, 실천이 옮겨지는 법칙이야.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한다면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를 없는 이름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체가 없어서 뛰어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으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다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참,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련단심 공부를 했더라면,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군인들이 주둔을 해가지고 거길 그냥 짝 모두 깨트려버리고 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이 났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그 동네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자손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울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좌선만

“진실하게 자기 자성을  
믿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



그림·최주현

하는 이런 피땀 어린 사연들을 어찌, 차려내 물렸으면 모르되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공(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뇌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뇌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나 이겁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차(放下)를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이것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自性),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전통신기도 놀려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려는 게 고 골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 런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똑바로 관(觀)해 볼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께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經)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서

참선이라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만법을 활용할 수 있고, 만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실상적으로 생활이 참선이고 그대로 생활이 삼매(三昧)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죠. 약방관을 들고 다녀야죠. 몸이 망가지면 마음을 약하지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진실하다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암인데요, 꼭 살려주세요. 집이라도 팔아서 시주를 할 테니 살려주세요." 내 가슴은 찢렷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여럿이고 오두막집이라도 팔면 저거 저...; 저렇게 모르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어떤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있는 오두막집을 팔아서 고생을 한다면 내 마음은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과거생으로서부터 받은 업보라면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 그러나 사는 길이 있긴 있죠. 진실히 믿고, 어려워도 진실히 믿고 거기가 '죽든 살든 네 탓이다.' 하고선 딱 놓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제 사는 길이 이라고요. 그런데 난 그럭해선 요구를 안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 암이니까, 그거 죽을 거니까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을 있어야 지식들하고 산다고 하면서 돈은 꼭 줘야.

그런데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을 해줄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가 잠자해서 해주지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내놓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서 돈을 내고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류를 해서 근거가 아니라면 상신을 할 수가 없죠. 뭘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법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시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는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그것도 자유겠죠.

나는 설법한답시고, 어떻게 된 건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게 있게 경을 봐서 하려고 한다면 벌써 그 묘법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하나도 가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일구웁심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에 의해서 그 피 한 방울이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또 여러분이 저 사람을 체게 있게 못하니까 나 안 간다 해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안 와도 할 수 없고 와도 할 수 없고, 진실히 믿어도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전에도 그랬죠. 신도분들이 내가 미약하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한 명도 안 오셔도 좋다고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꼭 찾다고요. 허공에도 많다는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다 주지 않았다고 굶거나 여러분이 갖다 줬다고 잘 먹거나 그러지도 않다는 이겁니다. 기껏해야 하루 종일 먹어야 할 공기 반이나 한 공기면 하루 종일 먹을 걸, 보리밥 풍량이, 아, 우리 스님들더러 물어 보세요. 김치하고 먹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잘 먹겠다, 덜 먹겠다, 더 먹겠다 이런 게 어딴스니

까? 외려 부작연(不續緣)해! 외려 부담이 간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걸 사다 주면 오히려 부담이 가. 어이구, 자식들하고 자기네나 먹지 뭐 때문에 이걸 가져오나 이려고, 솔직한 심정이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스님이 돼서 여러분한테 절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스님이나니까 으레 여러분한테 보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한테 음식을 받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해본 예가 없어요. 이 세상천지와 더불어 사생(四生)이 전부 내 마음과 몸과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참, 혼연일체가 돼서 상부상조하는데 어찌 남의 일이내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남의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귀중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그거를 냉철하게 알고 본다면 본래 산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그제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저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맘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에 붙은 밥통 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가식이죠. 진실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은 같이 돌아가고 하는 도리를 배우지마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복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

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分身)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들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좌우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씨름을, 무술을 잘하면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안 깜짝거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 떨립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변연히 이것이 딱 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딱 그릇에 엮어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를 스스로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주인공을 딱 찍어놓죠. 찍어놓으면 그 주인공은 영화가 다 끝나도록, 소설을 다 보도록 죽을 등 살 등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찍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주인공으로서 딱 모든 걸 관해 봐서 나에 관한 건 이리든가, 자식에 관한 건이리든가, 국가에 관한 건이리든가, 이 세상을 관해서 보려면 세계를 똑바로 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 우주적으로도